

# 아름다운 화장실은 새 천년의 관광자원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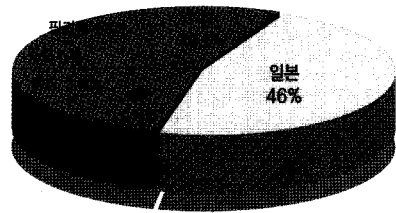
## 새천년은

- 2000년 ASEM(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및 APEC(아시아, 태평양) 관광장관회의
-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세계관광기구 총회
-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및 아시안 게임 등 대규모의 국제적인 관광축제로 시작된다

## 화장실 문화 개선의 필요성

한국의 「새 천년은 관광축제로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만큼 국제적 행사인 2000년 ASEM 회의,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이 준비되어 있다.

관광은 세계 각국이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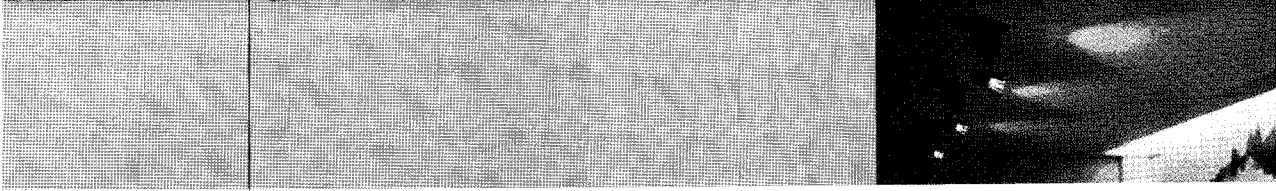
국적별 외래 관광객 수 (1998)

「관광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도 지난해에 사상 최초로 외래 관광객 400만명(총 425만명) 돌파와 관광흑자 37억불을 달성하여 IMF극복의 효자산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2002년 월드컵에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일본과 공동개최로 치열한 유치경쟁이 불가피하여 구체적인 대책이나 마스터플랜 없이 시간을 허비한다면 과거와 같이 「소문난 잔치」로 끝날수도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97년 한국관광공사에서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된 「언어소통불편, 교통불편, 불결한 화장실」등 3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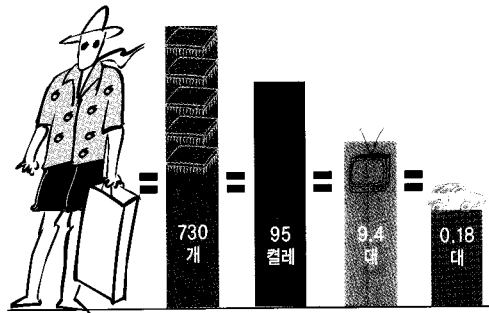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화장실 개선사업은 98년 한국관광공사(전국  
 공중화장실 197개소) 및 한국소비자보호원(5대도시  
 78곳)의 조사결과 80%전후의 대상자가 불결한 것으로  
 응답하여 공중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화장실 개선사업은 다른 불편사항 보다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빠른시일 내에 개선이 가능하여 투자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

### 개선작업의 방향

- 우선 공중화장실이 갖추어야 할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① 장소성 - 사용자들의 장소확인이 쉽고 이동거리가  
 짧아야 하며 범죄 예방까지 감안한 위치선정을 해야한다.  
 ② 공간성 - 실면적, 높이등이 위생기구 설치 및  
 장애인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기능성 - 이용자 계층등을 조사하여 필요한 시설등을  
 설치한다. (위생시트, 유아용시트, 파우더실, 에너지  
 절수형 시설등)  
 ④ 환경성 - 청결이 화장실의 최선이므로 실내조명 및  
 환기처리 시설등을 설치한다.

공중화장실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부가 무한대로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어도 장소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개축과



외래관광객 1명의 수출대체효과 비교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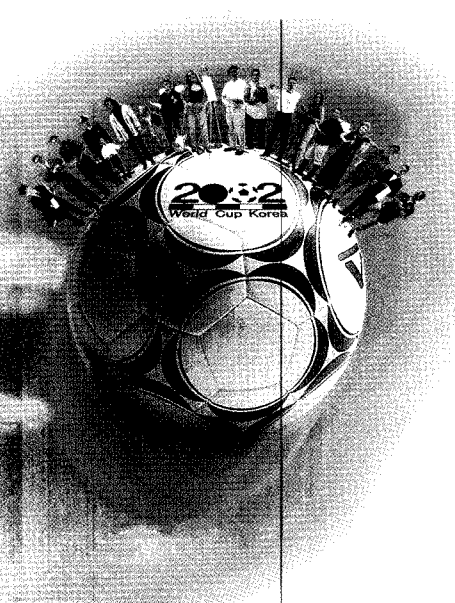
함께 적은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개인건물 내의 화장실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방법과 화장실 사용자에게 대한 인식개혁을 위해  
 한국화장실문화협의회등 NGO단체와 연대하여  
 대대적인 캠페인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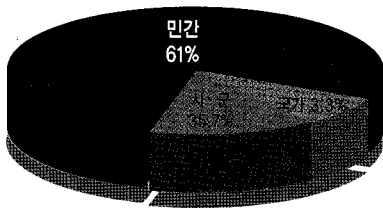
### 중앙정부의 사업

일부에서 화장실 개선작업에 중앙정부가 나서서 것을  
 외국의 사례를 들어가며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1985년에 화장실협회가 결성되어 충분히 노하우를  
 축적하였지만 2002년 월드컵까지3년도 남지않은 한국의  
 경우엔 충분한 행정망과 예산이 있고 시설 개·보수  
 명령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갖춘 중앙정부의 참여는  
 불가피하다.

### 제도정비의 필요

공중 화장실에 관한 법규는 대략 7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각 부(府)별로 분산되어 있어 (가칭)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 등으로 단일화와 함께 포괄적인 내용이 많아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건물내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 및 시정권고가 가능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등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관리 주체 (전국 23,755 개소)

### 관리체계의 일원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화장실 관련 담당자가 지역 및 업무 부서별로 관할이 다르고 순환보직으로 전문성 결여 및 책임관리가 안되고 있다.

### 표준설계화 작업

개선작업을 시작하는 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요청이 표준설계서를 보내달라는 내용인데 전문가들로 구성된 표준설계 작업이 시급한 현실이다.

### 전문 연구시설 설치

화장실 관련 심포지엄(Symposium)에서 조차 참고자료가 부족한 것을 느낄 정도로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연구시설에서 발표된 내용이 거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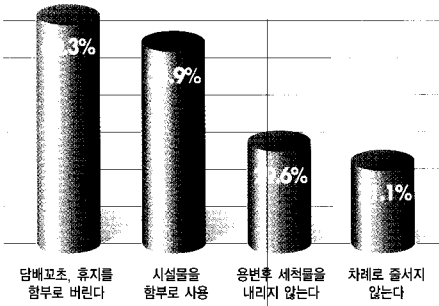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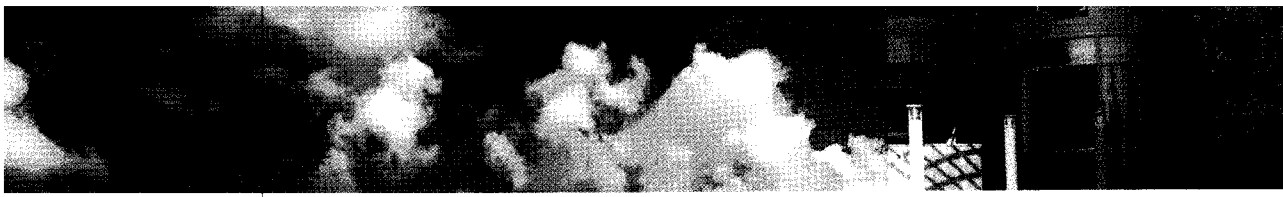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자치단체에서 신·개축에 대해 예산상의 어려운 점과 함께 재래시장, 버스 정류장등 다수가 동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설치 장소 확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런곳은 대부분 개인 또는 법인 소유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있고 업무를 계속하면서 개·보수를 진행해야 하고 소유자와 운영자가 다른 경우가 많아 설득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어느정도 한시적인 반대급부가 불가피한 경우가 생긴다.

개방화장실(또는 우수화장실) 표지판 부착과 함께 자치단체의 홍보물등에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방법, 재산세등 관련세금 일부감면 및 위생점검 완화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 시설 개·보수에 대한 저금리의 융자 지원, 장소에 따라 유료 공중화장실 또는 상업광고판 설치 허가등 지역 사정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어 스스로 장기적인 투자라는 인식이 생겨야 하며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치단체에서 나서지 않아도 일부 시·군에서 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 줄서기는 모든질서의 기본이다.  
(한 줄서기 캠페인 중)



이용자의 문제점

위해 화장실 개선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결정권자인 시장·군수의 의식이 전환되어야 하며 편의시설로 개선하는 것에 아직은 20~30대의 지지와 50~60대의 반대가 병존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

### NGO단체도 나서야

사용자의 의식수준이 아직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기존시설을 그대로 두고 도덕성에 호소하는 청결 캠페인만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만들어 가기는 어렵다. 시설 개·보수와 함께 시민단체들도 참여하여 「한줄서기운동」, 「내집같이 공중화장실 사용」등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면 비록 일본보다 10여년 늦게 시작하였지만 적어도 화장실 문제로 외래 관광객에게 외면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아직은 늦지 않았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에 전직대통령 및 외교사절등 4만5천여명이 참석한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이동화장실이 겨우 100개가 설치되어 하나에 50~60명이 줄서기를 하였고 올해 마이클잭슨의 자선공연 행사가 열린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선 5시간 20분동안 첨단 조명·영상장비가 춤을 추었지만 무대가 설치된 경기장 주변엔 임시화장실의 부족은 물론 손을 씻을 곳이 한 곳도 없었다고 한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추어진 부끄러운 화장실문화를 우리가 모른체 한다고 스스로 개선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비록 2002년 월드컵까지 얼마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다면

화장실 문화는 아름다운 꽃망울로 피어날 것이다.

**왜! 화장실을 그 나라의 종합적인 생활문화 수준이라고 하는가?**

내·외부의 구조물을 보고 건축기술을 평가 하고 청결 및 위생 관련 시설로 과학기술을 판단 한다. 노약자 및 장애인 시설물은 복지수준에 대한 척도가 되고 이용자의 청결의식은 공중도덕 및 정신문화수준을 나타내고 유지관리 상태는 행정 전반의 성적표를 연결된다.

아직 '뒷간'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의식을 전환하여 스스로 이용자라고 생각하며 개선할 때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리라고 본다. 일부 지자체 및 단체에서 개·보수 비용문제로 논란이 있는데가 있다고들 한다. 「물고기 한 마리를 낚기 위해서도 미끼를 투자해야 한다.」 하물며 2003년에는 외래관광객 700만명을 유치하여 120억불의 수익을 낼 수 있는 21세기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불가피하다. 아직도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